

2024. 1. 20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1월 19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

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기획경영처장 | 윤혜선 | 3410-9730 |
| 총무인사팀장 | 이동률 | 3410-9751 |
| 관련 누리집 | www.swr.or.kr | |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3쪽

하수처리 정보 체계적 관리위한 '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록관' 개관

- 기록물 3만여권 보존 가능한 '기록관' 조성... 물재생 기록물 장기적·안정적 관리
- 물재생센터 기록물 통합관리... 원활한 정보 공유, 기록물 활용·전문성 강화 기대
- 공단 "기록물 관리뿐 아니라 물재생 분야 역량 지속 강화, 선도기관 역할 다할 것"

- 서울물재생시설공단(이사장 권완택)은 물재생과 관련한 공공기록물을 보다 장기적이면서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관리하기 위해 '서울물재생 시설공단 기록관'을 개관,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- 지난 17일(수) 개관한 '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록관'은 20여 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던 '물재생센터'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이 추진됐으며, 135㎡의 공간에 약 3만여 권의 기록물을 수용할 수 있는 보존서고와 열람실로 구성됐다.
- 물재생공단은 탄천센터 내 유휴공간을 발굴, 기록관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기록물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전담직원도 채용했다.

- 물재생공단은 이번 기록관 개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의 기록물 11,237권을 정리, 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 중으로 서남물재생센터 기록물을 전수조사하는 등 향후 서울시 물재생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통합관리 할 계획이다.
- 아울러 올해 서울시 각 물재생센터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록물을 열람, 활용할 수 있는 ‘기록관리시스템’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.
- 물재생공단은 기록관 개관,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앞으로 하수처리 등 물재생 기록물의 조직적인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업무 효율성, 전문성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권완택 이사장은 “기록관에 보존되는 기록물은 서울 하수처리의 과거와 오늘을 이어주고, 미래 물재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”이라며 “기록물 관리뿐 아니라 앞으로 물재생 분야 역량을 지속 강화, 물 산업 거점이자 선도기관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〈첨부 1〉

기록관 및 개관식 이미지



기록관 전경 사진



기록관 내부 사진



기록관 개관식 행사 사진